

# “매순간 희망의 조건 가꾸자”

## 5

1994-1999  
현대불교 창간 5돌

### 특별기고 한국불교, 새천년 준비하고 있다

도법스님(실상사 주지)



된다든 사실이다. 이에 몇가지 제안을 해보고자 한다.

- 1) 불교를 올바르게 파악하고 이해하여 연기법의 세계관을 확립해야 한다.
- 2) 연기법의 세계관에 입각한 공존, 협동, 균형의 생활문화를 형성해야 한다.
- 3) 올바른 수행관과 민주적 운영방식을 정착시켜야 한다.
- 4) 지성과 교양이 존중되고 청빈한 생활이 일상화되어야 한다.
- 5) 배우고 가르치고 탐구하는 생활을 통해 좋은 바늘이 모여드는 곳이 되게 해야 한다.
- 6) 세상을 구제하기 위한 대비역량의 사명감을 가꾸어야 한다.
- 7) 비구 비구니, 출가 재가의 관계를 바람직하게 정립해야 한다.
- 8) 사부대중 공동체의 전통을 회복해야 한다.

너무나 평범하고 당연한 내용이다. 너무나 구태의연하고 상식적인 이야기이다. 장담하건대, 당연하고 상식적인 문제를 제대로 정리하지 않는 한 새천년이 아니라 새만년을 준비한다 해도 도로아미타불이 될 것임은 불보듯 명백하다.

새천년을 위해 불교계가 범불교적 최대의 불사로 준비 추진해야 할 일이 있다. 위에서 제안한 내용을 갖출 수 있도록 출가, 재가, 대중을 상대로 한 불교교육체계를 확립하는 것이다. 이렇게 새천년을 준비해야만 바람직하고 의미있으며 좋은 결실을 보게 될 것임을 확신한다.

이번 판결이 불교계에 혼란을 불러온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재판관과 그 가족을 위협하는 짓을 서슴없이 저지르는 일이 과연 불교를 위하는 일이고 불자다운 행동일까. 판결이 잘못됐다면 그것은 그것대로 절차를 통해 풀어나가자. 불만이 있다고 사람의 목숨을 가지고 협박하는 것은 불자답지 못한 것은 물론 인간으로서 해서는 안될 가장 저질적이고 야비한 짓이다. 협박과 같은 비열한 행동으로 불교가 얻을 이익은 아무것도 없다. 이래저래 마음상한 불자들에게 더이상 부끄러움을 안기지 말았으면 한다.

한명우 (취재1부 기자)

끊임없이 흐르고 또 흐르는 것이 세상의 모습이고 우리들의 삶이다. 어느 한순간도 변화하지 않은 적이 없다. 그 무엇이 변하지 않고 처음 모습대로 있어 본일이 없다. 조금만 진중하게 들여다보면 변화는 언제나 변함없이 전개되는 평범한 현상일 뿐이다. 새삼스러운 일도 아닌데 변화에 대비한 준비를 하지 않으면 큰일난다고 법석들이다. 참으로 큰일이 벌어질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있다. 너도나도 정보화, 세계화로 표현되는 새로운 삶의 양태에 관심을 쏟고 있다. 평가가 엇갈리고 있지만 거의 맹목적인 미래를 향한 환상적인 기대를

## “미래에 대한 환상적 기대보다 연기법따라 공존·협동·균형”

갖고 새천년을 이야기하고 있다. 욕을 가지았을, 바람직함에 대한 관심은 없다. 오로지 더 많은 소유와 권리와 경쟁을 위해 온 세상이 새천년 타령을 하고 있다. 뭘가 석연치 않다. 화려하게 포장된 새천년 실상은 과연 무엇인가? 달콤한 논리로 유혹, 협박하고 있는 세계화, 정보화 사회란 정말 기대해도 괜찮을 것인가? 생각할수록 회의만 깊어진다. 경험에 의해 형성된 지혜는 위대하다. 역사의 경험은 주는 교훈으로 미루어 보자. 늘상 그래왔듯이 떠들썩한 새천년 잔치도 특징인들이 무지와 탐욕의 야심으로 펼치는 한바탕 장사판일 것으로 사료된다.

지금 우리의 모습을 보자. 무엇이 달라졌는가. 빈부격차의 벽은 더욱 고착되고 있다. 부족과 불편함으로 인한 불만은 증폭되고 있다. 불신과 의혹의 강물은 날로 깊어지고 있다. 갈등과 대립, 불안과 공포, 비안간화, 생명 위기의 상황이 현실로 구체화되고 있다. 이렇게 된 이유는 간단 명료하다. 무지와 탐욕으로 삶을 다루었기 때문이다. 세계의 실상에 대해 무지하고 맹목적인 탐욕으로 가꾸어 온 삶의 결과는 언제나 불타는 집 속의 고통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 이는 부처님 말씀이기도 하고 역사의 경험을 통해 확인되는 사실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무지와 탐욕으로 새천년 타령을 이야기 하고 있다. 그래서 중생은 중생일 수밖에 없는가 보다. 실상이 이러한데 불교계마저 시류에 휩쓸려 탐욕과 경쟁의 논리로 새천년 타령을 해야 할 것인가. 한 걸음 물러서서 굳이 해야 할 당위성이 있다

면 불교계는 불교적 관점과 문제의식을 갖고 우리 현실에 맞는 준비를 했으면 한다. 방향과 길을 제대로 알고 가야 한다. 방향을 잘못 잡으면 모든 노력이 무위로 끝나게 된다. 길을 모르면 차라리 아니 가는 만 못하다. '나는 다만 길을 가리킬 뿐이다'라고 하신 부처님 말씀이 갖는 의미는 대단히 뜻깊다. 불교적인 기본 관점을 정리하고 문제를 다루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된다. '삼계가 온통 고통으로 가득차 있다. 나의 전존재를 바쳐 세상을 구제 하리라.' (부처님 탄생계) '시타르타라는 중생이 부처로 태어

## “미래에 대한 환상적 기대보다 연기법따라 공존·협동·균형”

나는 출발점이다. 불타는 집에서 벗어나는 첫걸음을 이끌어내는 내용이다. 중생인 시타르타가 부처되고 불타는 집에서 벗어나는 깨달음의 길을 열었을 때의 의미를 경전에서는 매우 감동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어둠의 역사가 청산되고 광명의 역사가 시작되다. 고통의 감옥이 부서지고 자유의 삶이 실현되다. 불행과 절망의 세계에서 희망과 행복의 세계가 펼쳐지다. 죽음과 파멸의 길에서 영원한 참 삶의 길이 열리다.' (불본행집경) 깨달음을 통해 찾아낸 연기법의 길만이 진정한 참 삶의 길이요 희망의 길임을 온 우주가 웅변하고 있다. 연

지난달말 AP통신이 선정·발표한 '20세기 10대 사진'에는 한국 관련 사진이 두 장 들어 있다. 그 중 하나는 다름아닌 지난해 12월 조계사 불상을 다룬 연합뉴스의 사진이다. 이 사진은 조계사 건물에 진입하던 경찰관 5명이 고가사다리가 뒤집어지면서 10m 높이에서 낙엽처럼 추락하는 모습을 담고 있다.

그런데 종교개혁도 한국 불교의 추락한 이미지를 만천하에 알린 '20세기 사진'이 발표된지 사흘 뒤에 법원이 내린 판결로 한동안 진정 기미를 보이던 종단 분류가 다시 재현됐고, 판결을 내린 서울지법 이수형 부장판사가 갖가지 협박으로 고통을 겪고 있다고 한다. 매일 밤 걸려오는 정체불명의 협

기법의 길만이 하늘의 길 땅의 길이요, 너의 길 나의 길 우리 모두의 길이며, 어제 오늘 내일의 길임을 설파하고 있다. 연기법의 세계관만이 삼계를 벗어나고 부처되는 길임을 확신하지 않는다면 이미 불교 또는 불교인이 아님을 단언하고 있다. 확실한 불교적 관점을 갖고 새천년을 준비할 때 셋발을 보게 된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한다. 보다 더 분명한 것은 매순간 연기법의 세계관으로 부처될만한 조건, 희망의 조건을 준비하는 것만이 진정한 천년을 준비하는 것이

박전화는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와 부모님 집 위치를 안다"며 가족들까지 겨냥하고 있고, 심지어는 '축이수형판사 사망'이라는 카드가 든 꽃바구니까지 집으로 배달돼 가족들을 극도의 불안감에 떨게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같은 이부장판사 협박 사실은 언론에 대대적으로 공개됐다. 협박법들이 누구인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지만 국민들은 당연히 이번 판결에 불만을 품은 불교인의 소행으로 여길 것이다. 불교인이 했던 안했던 불교의 이미지는 지난해 조계종 사태때와 마찬가지로 또한번 추락했다.



### 또 한번의 추락

## 공 고

**폭력집단 정화측은 온 종도와 국민 앞에 참회하고 해산되어야 합니다.**

최근 서울지방법원 민사42부의 그릇된 판단으로 인하여 종단내 일부 혼란이 야기되나 그것으로 종단의 자주권과 법통이 훼손될 수 없습니다. 주지하다시피 지난 10월4일 통도사를 제외한 23개 교구본사 주지회의와 중앙총회에서는 현 종단 및 집행부를 적극 지지할 것을 결의하고, 사법부의 오판 및 정권 일부에 대하여 자성을 촉구하기 위해 오는 10월12일 '불교 자주권과 법통 수호를 위한 제1차 사부대중 결기대회'를 개최기로 한 바 있습니다.

**이에 즈음하여 본 호법부는 종단의 안정과 법통수호를 위해 종도들에게 알려드립니다.**

1998년 종단사태를 야기한 폭력집단 정화측은 한국불교 1600여년 법통을 계승한 본 종단에서 비승가집단으로 규정되어 멸빈 등의 중징계가 되었습니다. 또한 서울지법 민사42부에서 지정하였다고 하는 도전 총무원장 직무대행도 고산스님의 항소포기로 그 지위가 원전적으로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사안이 이러한에도 폭력집단 정화측은 금번 사태를 빌미로 또 다시 종권탈취의 망상을 버리지 못하고 종단과 종도들을 대상으로 온갖 책동을 벌이고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멸빈 등 중징계로 종단에서 빈척된 폭력집단 정화측의 갖가지 책동에 이용되거나 현혹된 후자로 종단내에서 불이익을 받는 종도가 없기를 당부 드립니다.

특히 1998년 종단사태로 인해 해종특위의 조사 내지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는 승려의 경우 현재의 일부 혼란을 기회로 폭력집단 정화측에 동조하는 사례가 없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와 같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본 호법부에서는 철저히 조사하여 향후 종단의 대화합 조치시 대상에서 제외함은 물론 사안에 따라 엄중히 가중 처벌할 것임을 밝히오니 당사자들은 참회자 속과 개전의 정을 놓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불기 2543년 10월 6일

**대인불교 조계종 총무원 호법부장 증지**

## 현 종단 상황에 대한 포교사단의 입장

지난해 우리는 조계종단이 다시 한번 비극적 폭력사태와 함께 타율적으로 수습됨을 모든 불자들과 함께 참담한 심정으로 지켜보았다. 그러면서 또한 종단이 자주적으로 자비와 지혜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화합되고 안정된 종단으로 나아가기를 한없이 기대해 왔었다. 그러나 지난 10월 1일, 2일에 이루어진 소위 정화개혁회의의 소송정기 및 지체됨지 못한 사법부의 무책임한 판결로 야기된 현 종단의 위기 상황에 대하여 경악과 우려를 금치 못했다.

지난 9개월에 걸쳐 자숙과 참회의 마음으로 지켜온 종단의 안정과 화합의 기대를 여지없이 부서 버린 실로 어처구니 없는 상황에서 제2의 종단사태를 막고 종단의 정통성과 자주권을 수호하기 위해 우리 조계종 포교사는 불퇴전의 결연한 심정으로 다음과 같이 포교사단의 의지를 밝힌다.

**첫째,** 종단의 정통성과 자주권을 유린한 이번 사법부의 판결은 명백한 오판으로 기록될 것이다. 단지 절차상의 사소한 문제를 이유로 한국불교의 대표 종단을 혼란에 빠뜨린 지혜롭지 못하고 무책임한 판결에 엄중히 항의한다.

**둘째,** 지난해 엄청난 폭력사태를 야기시키며 종단을 혼란에 빠뜨리고 사부대중의 가슴에 씻지 못할 상처를 입힌 소위 정화개혁회의는 이번 사태를 빌미로 외부의 힘을 빌려 종단의 안정과 화합을 저해하는 일체의 반 불교적 행동을 즉히 중단하라.

**셋째,** 우리 포교사는 현 종단의 정통성을 뒤흔드는 어떠한 불법적 행동에 대해서 단호히 대처할 것이며, 10월 4일의 교구본사주지회의와 중앙총회의 법통수호결의를 적극 지지하고, 오는 12일 "불교자주권과 법통수호를 위한 사부대중 결기대회"에 적극 참여하여 우리의 실천의지를 보여 줄 것이다.

**넷째,** 우리 포교사는 이번 종단의 사태를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 그동안 실추되어 있었던 청정승단의 모습을 회복하려는 각고의 노력이 필요함을 인식하면서, 자숙과 참회의 모습으로 이번 사태가 출가 승단의 화합과 단합된 모습으로 의연하게 수습되기를 간절히 기원한다.

불기 2543년 10월 7일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사단**

서울, 경기 포교사단 / 부산, 경남 포교사단 / 대구, 경북 포교사단  
대전, 충청 포교사단 / 광주, 전남 포교사단 / 전주, 전북 포교사단

# 열린마당

## '조계종 분류'에 대한 PC통신 반응

현 조계종 사태를 바라보는 네티즌들의 반응은 차라리 분노에 가깝다. PC통신에 오른 불자 네티즌들은 일촉즉발과 같은 현상화에 큰 우려를 표하면서 지난해와 같은 폭력사태가 일어나서는 안된다는데 견해를 같이하고 있다. 특히 불교계를 손익간에 혼란으로 몰아넣은 사법부의 판결에 대한 반응도 뜨거웠다. 그러나 속가법에 휘둘리는 불교계의 나약함과 문제해결에 필요한 한계를 지적하기는 마친가지였다. 다음은 천리안과 하이텔에 오른 네티즌들의 반응을 요약한 것이다.

- ...종단의 문제는 불교를 구성하는 모두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현실을 극복하지 못하고, 한계를 극복하지 못한다면 제 아무리 선방에서 참선을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불교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우리입니다. 불교를 구성하는 모든 이들이 주인입니다. 문제가 있다면 문제를 해결하고, 보다 나은 불교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 더 중요한 자제가 아닐까 합니다. (CHOSO1)
- ...아무 것도 없는 곳에 해서 정법을 지켜야 한다. (고른세상)
- ...법원이란 기관은 유연성을 보인다거나 정치적인 고려를 하는 곳이 아닙니다. 주어진 자료에 의해 과연 주장하는 바 타당한가를 판단하는 기관일 뿐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세간법이 우리의 일에 들어오는 것은 반대입니다. 그러나 그 세간법을 먼저 끌어들이면 좋은 현 집행은 것이 더 중요한 자제가 아닐까 합니다. (CHOSO1)

매들은 나에게 중생들에게 허기라도 면하게 해주지 만... (PBOBJANG)  
●...또 다시 시끄러운 소리가 들린다. 그대 자신이 누군지도 모르면서 어떻게 남을 논하고 물에 빠져 자신도 허우적거리면서 어떻게 중생을 구하겠다고 하는가. 웃기는 일이다. (ANDNLWK)  
●...다른 계사판을 돌려 봐도 불교만큼 어수선한데가 없을듯 싶군요. 이래서야 처음 종교를 접하는 사람들이 좋은 마음을 낼리가 없지요. 모두 노력하십시오. 아무리 좋은 진리를 이야기해도 사람들의 본성과 합일하여 마음을 움직일 수 없다면 별무소용일 것입니다. (amida)  
●...사법부는 10월1일과 2일의 판결을 통해 대한불교 조계종의 갈등을 훌륭하게 조정하였으며, 이미 형성되고 있던 화합의 기운을 훌륭히 해소하였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초래한 사법부의 판

## “불법외면 세속법에 의존 싸워서야” “사법부 법정신 부재...폭력 우려”

서, 모든 기록권을 떨쳐버리고 처음부터 정말 초발심으로 시작하는 자신있는 불교... 오늘 좋은 밤이 되기를... 마당에 떨어진 노란 콩 한알을 주면서 그런 불교를 생각해 봤다. 그런 중에 접한 조계종 분류는 갑자기 폭탄을 맞은 기분이다. (JBW000)  
●...하도 열이 나서 일간지를 살살이 훑어 봤습니다. 제발 이 추악한 일들이 빨리 없어지고 불교의 앞날에 어두운 그림자가 없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늘이 있고, 호법신승이 있다면 불순한 의도로 불교에 먹칠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 철뿔을 내리기 바랍니다. 그것이 관사든, 징화와 개혁회의든, 현 종단 집행부든, 과거 집행부든 간에 말입니다. (TIGERK)  
●...정화개혁회의라면 조계사에서 난동을 부린 그 무시무시한 폭력배를 연상하게 된다.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자세한 알지 못하지만 이미 불자들이 인정하고 있는 조계종 총무원을 세속인 이 어리석은 자대로 재단하여 이렇게 광자공과를 일으킬 수 있다. 불자들은 단합

결론은 정당한 법집행에 대한 의무를 유기고, 법정신의 부재만을 담고 있을 뿐입니다. (새벽동산)  
●...종교가 사회를 선도하지 못하고 사회현상을 따라가기 때문에 사회법이 종교의 사태에 관여하는 것이다. 지금의 조계종단 권력다툼의 양상은 어느 일방만의 책임은 아니다. 종헌종법수습을 외치는 사람들도 여법하지 못하고 정화개혁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여법하지 못한데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하란 말인가. (CHOI1214)  
●...이번 사태가 끝난다고 해도 불교내에서 세속법을 등에 업고 싸우는 모습은 여전히 참관할 수 있는가. 발도 은행도 모르고 탕자도 말 것이 많다. 저 나무들 중에 열린 한 개의 과실 값어치도 안되는 사람들, 저 열